



2020년 5월 17일(제982호) 부활 제6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미무르십니다.”

‘친구’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2001년에 개봉했던 ‘친구’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 친구가 가진 의미가 더욱 잘 드러납니다. 유오성, 장동건, 서태화, 정운택이라는 유명한 영화배우들이 부산을 배경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나란히 어깨를 마주하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는 내 뒤나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나란히 함께 있습니다. 친구는 나와 가까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나란히 어깨를 맞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자의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한 획을 한 사람으로 본다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받치고 있는 모양이지요. 이렇듯이 친구는 나의 옆에서 나와 나란히 있기에 나를 받쳐주고, 또 나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보호자, 곧 성령을 보내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호자라는 말의 원어인 파라클레토스는 ‘내 옆에 보내진(파견된) 분’이라는 뜻입니다. 내 옆에 보내지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계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 뵙는 그 날까지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옆에 계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옆에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가 스스로 나아가면서 협조자, 보조자이신 성령의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어 우리가 그저 종처럼 시킨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동반자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스스로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항상 머무르시어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돕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봅시다. 서로 손을 잡고 하느님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기를 바라시면서 서로 다르기만 한 나와 너 사이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설사 불화와 아픔과 상처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더라도 나와 너 사이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 사이를 평화와 화해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사이에 계시는 성령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안에서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완(시몬) 신부  
편집(32시몬) 상당 주임

- 제 1 특 시** 사도 8,5-8.14-17
- 회 답 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제 2 특 시** 1베드 3,15-18
-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 복 음** 요한 14,15-21
- 영 성 제 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 한국 천주교 주교단 기후 위기 성명서

##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누이이며 어머니 같은 지구 생태계가 울부짖고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우리는 올해 시작부터 여러 대륙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일찍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일 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부활절 전례 거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경로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으로 아무런 제어 없이 질주해 온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로 삼림 파괴와 동식물의 멸종이 인간 세계와 먼 거리에 있던 바이러스들을 숲 밖으로 불러냈고, 인간세계의 고속화된 교통과 유통망은 이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많은 이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각국의 국경 폐쇄와 물류 차단으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는 지금 전 세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불황을 예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는 많은 과학자가 예측하고 경고하는 더 큰 재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후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로 빚어질 재난은 자연계 전체에 더욱 엄청난 혼돈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바이러스들의 창궐을 가져올 것입니다. 기후 변화는 이미 생태계 곳곳에 심각한 재난의 표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특별보고서(2018년)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아래로 막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기후 재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1°C 상승하였고,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에는 상승 한계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큼니다. 그에 따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국제 연합(UN) 보고서는 1.5°C 상승만으로도 심각한 물 부족, 폭염, 경작지 감소, 식량 위기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고, 이어서 인류 전체가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무책임하게 모든 피조물을 남용하고, 혹사하고 약탈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오염과 질병과 기후 위기에 봉착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찬미받으소서」, 2항 참조). 지구는 우리가 만들어 낸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자입니다. 우리도 지구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탐욕과 오만으로 하느님과 자연을 거슬러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이미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하느님 창조 사업의 협력자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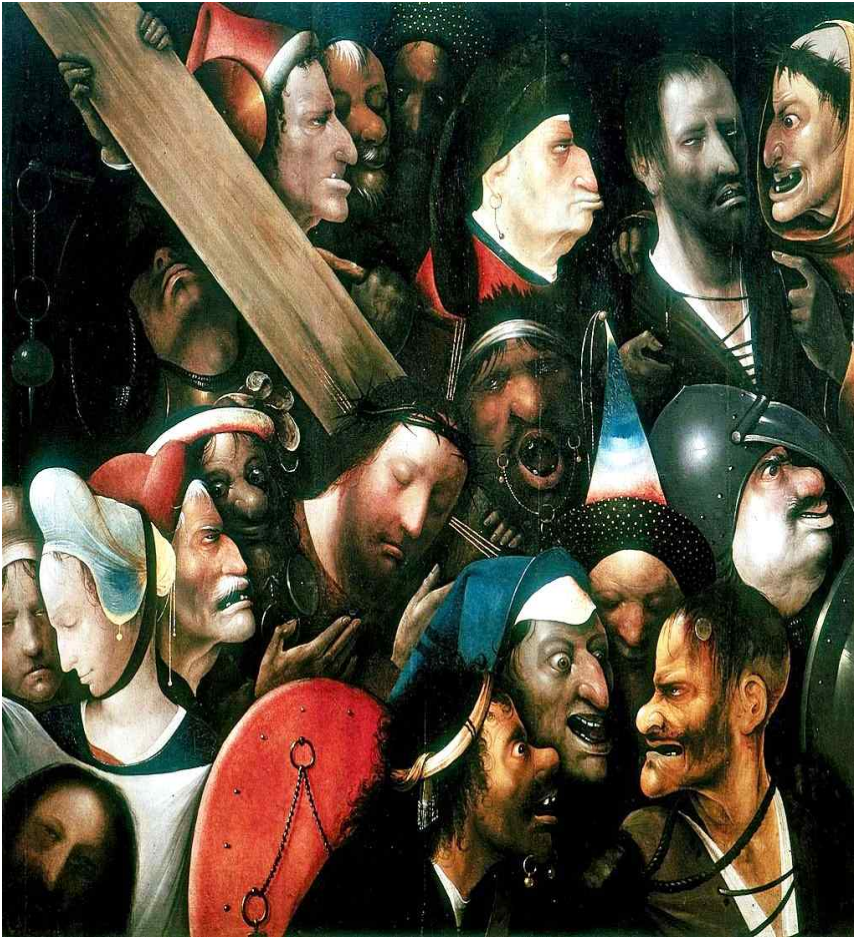
1.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구 생태계 위기에는 사회적 사랑으로 대처합시다.
  - 검약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생활 양식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합시다.
2. 선의의 모든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 재생에너지 확대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3.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와 담당자들에게 호소합니다.
  - (1)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와 도시가 기후 위기 비상 사태 선포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기후 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 사태를 선포하십시오.
  - (2)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 정의에 입각하여 석탄 화력 발전소의 과감한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농·축산업의 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십시오.
  - (3) 기후 위기에 맞설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십시오.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회의 선한 이웃들이 마치 ‘노아’처럼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받아들인다면(「찬미받으소서」, 71항 참조), 세계는 헛된 성장의 신화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전환하고 지구촌의 파국을 비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5월 8일  
 회칙 「찬미받으소서」 5주년을 맞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단

상화이야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어두운 뒷배경(거의 검은 색이다.)에 많은 이들이 그림을 가득 채우고 그려져 있어서, 한 번에 예수님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중앙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십자가가 보이고, 고뇌에 가득 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것이 보인다.

주변의 인물들은 다소 흥측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다. 좌측 왼쪽에 베로니카 성녀가 예수님의 수난의 얼굴을 닦은 천을 고개를 숙인 채로 들고 있다.

히에로니무스 보쉬  
1510-35년경 제작  
피넬 위 유화, 74×81cm  
긴트 미술관, 벨기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모략꾼으로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1베드 4,14-16>

김은혜(벨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의를 위한 미사 - 부활 제6주일: 하상비오로 이성현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곳: 5월 20일(수) 17: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안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르”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